‘한국의 임제’ …후학양성 큰 족적

서옹 스님 행장

무위진인의 삶… 끝까지 수행자 본분 지켜
“현대문명위기 극복” ‘참사람 운동’ 펼쳐

◇포행하며 생각에 잠긴 생전의 서옹 스님.

평소처럼 선정(禪定)에 든 모습 그대로 단정하게 앉아 열반(좌탈, 坐脫)에 든 서옹(西翁)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던 ‘우리 시대 최고의 선승(禪僧)’이자 ‘현대 한국불교를 지탱해온 큰 기둥’이었다.

일찍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와 선(禪)을 전해주었다면, 이 ‘서역(西)에서 온 늙은이(翁)’는 조사선 수행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의지로 한국 조사선의 선풍진작과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사선임을 내보이기 위해 ‘참사람 결사운동’을 펼쳤으며, 세수 90이 넘어서도 선방 수좌들의 공부를 1대 1로 점검해 주었다. 또한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와 소탈하고 격이 없는 성품으로 재가불자들의 방문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준, ‘무위진인(無位眞人)’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고 갔다.

1912년 충남 논산에서 유학자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난 스님이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양정고등보통학교에 다닐 때였다.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양정고보에 입학하던 28년, 어머니와 할아버지마저 갑작스레 세상을 뜨자 삶에 대한 절망과 회의에 빠져 지내던 소년 이상순(李商純, 속명)은 간디의 자서전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되면서 불교서적에 심취하게 됐다. 그렇게 접한 불법(佛法)은 의사가 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1932)에 입학하도록 이끌었고, 김대은 스님의 소개로 평생의 스승 만암 스님을 만나 백양사로 출가했다.

‘서옹’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 만암 스님과의 일생일대의 큰 만남 이후 스님은 37년 오대산으로 가 방한암 스님 밑에서 2년간 참선 수행에 정진했다. 여기서 나름의 견처(見處)를 얻은 스님은 39년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京都) 임제대학에서 선학 연구를 통해 실참(實參)을 겸비하게 된다. 졸업(1941)할 때 쓴 ‘진실자기(眞實自己)’란 논문은 나중에 일본 각 대학의 교재로 채택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고 한다.

임제대 졸업후 일본 임제종 총본산 묘심사(妙心寺) 선원에서 3년간 수행한 스님은 44년 귀국, 20여 년간 전국 선방을 돌며 수행에 전념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선원장(1962),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조대 조실(1964),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대흥사 선원의 조실을 역임했으며, 74년 조계종 제5대 종정(~1979)에 추대되기에 이른다.

평소 “참선이야말로 가장 쉽고 올바른 수행법이며 본래 자비심이 있는 참모습을 깨닫는 길”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96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추대됐고, 98년 ‘참사람 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스님이 70년대 주창해온 ‘참사람’은 당나라 임제의현 선사가 말한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다. 참사람은 상하 귀천 성인과 범부 등을 초월해 어떤 막힘도 없이 본래 면목에 투철한 사람으로, 스님은 본래 지니고 있는 참사람의 성품을 발견해 생사와 욕망을 넘어설 때 사바세계의 갈등과 투쟁은 사라지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 곧 불국정토(佛國淨土)가 된다고 늘 밝혀왔다.

98년과 2000년, 지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승속(僧俗)이 한데 모여 법을 묻고 답하는 무차선회(無遮禪會)를 백양사에서 열었고, <임제록연의> <선과 현대문명> <절대 현재의 참 사람> 등의 저술을 통해 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심을 갖도록 했다.

스님은 수행의 일환으로 익힌 붓글씨(선필, 禪筆)로도 유명한데, “좋은 글을 써 주겠다”며 찾아온 호남지방의 한 유명한 서예가가 스님이 먼저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써 보이자 더 이상 글씨를 쓸 엄두를 못 냈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준엽 기자

buddhanews.com에 입적기사 종합

“화두 타파 생사초탈하라” 늘 강조

서옹스님 수행 일화

상좌들이나 문도,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들은 서옹 스님의 수행일화는 말 그대로 서옹 스님의 삶 자체가 ‘수행’이었음을 보여준다. 온화한 성품이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던 서옹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정리한다.

○… ‘항상 화두 참구하라’ 고 당부한 엄격한 스승

백양사문도 대표이며 상좌인 원로의원 지종 스님은 서옹 스님을 항상 엄격한 수행을 당부한 스승으로 기억한다. 마음을 비우고 자나 깨나 화두일념으로 살아갈 것을 늘 당부하면서 화두를 타파해 생사를 초탈하라던 가르침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 “출가수행자는 행동이 품도에서 벗어나선 안돼”

상좌인 지선 스님은 은사인 서옹 스님의 꼿꼿한 모습을 항상 존경했다.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견지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 그 연유를 묻자 “출가수행자는 언제나 성체(聖體)가 품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수행자의 올곧은 자세를 강조했다고 한다.

○… 일본 임제종 묘심사서 철저한 수행 유명

서옹 스님이 일본 임제종 묘심사에서 정진할 때의 이야기. 당시 임제종 선원 입방 과정은 3일 동안 대기하면서 온갖 방해를 극복해야 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시비를 하기도 해 대부분 수행자들은 그 화를 못 참고 돌아가기 일쑤였단다. 그러나 서옹 스님은 오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시비를 해도 빙그레 웃으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여 2일 만에 통과했다고 한다.

○… 원로의원 성수 스님과 치열한 구도행

조계종 원로의원인 성수 스님은 “스님과 나는 함께 지내며 치열한 구도행을 펼쳤다”고 회고했다. 성수 스님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봉암사와 서울 백운암에서도 몇 철을 같이 나며 수행을 했는데, 특히 서울 백운암에서는 몇 개월을 수행정진 하다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백운암 위의 처소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수행에 전념하시는 철저함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 자신을 ‘등불’ ‘부처’ 로 비유

서옹 스님이 입적하기 전 시자인 호산 스님이 “큰스님 92평생을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의 선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스님은 “등불, 등불”이라고 답했다. 이유를 물은 즉 “등불은 잠시 밝았다가 꺼져버리잖아” 라며 자신을 비유했다고. 또 며칠 후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이번에는 “부처, 부처”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마음을 갖고 있고, 모든 이들이 부처되길 노력하니 나도 부처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 부처님 예경 목숨처럼 여겨

90년대 말 참사람 결사운동 사무처장을 맡았던 손상좌 금강 스님이 백양사에 머물며 서옹 스님을 뵌 이야기다. 당시 서옹 스님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예경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혹여 저녁 예불 때 밤길이 어두워질 때면 항상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한 후 예불을 모셨고, 이어 ‘능엄주’를 외웠다고.

○… 몸에 밴 근검 절약정신

서옹 스님은 원적에 들기 3일전까지 근검, 절약정신을 몸에 지녔다고 한다. 시자인 호산 스님은 “화장실에서도 휴지 3칸을 절단해 꼬깃꼬깃 접어 사용할 정도로 근검절약 정신이 뛰어난 분이셨다”며 “세수하실 때에도 물 한 바가지를 낭비하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이유를 물으면 대종사는 “물 한 방울, 휴지 한 장이라도 아껴야 수행자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큰스님 ‘원적모습’ 은 법문

보조국사 · 한암 · 만암 스님 좌탈 유명
잣나무 붙잡거나 관속에 들어가 열반도

“선사들의 열반 장면도 법문이다.”

서옹 스님의 좌탈(坐脫)을 계기로 선사들의 마지막의 순간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다.

선사들은 죽음까지도 인간의 의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생들에게 보여준다. 자유자재한 열반모습을 통해 중생들에게 생사가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인연을 정리할 때 보이는 시적(示寂, 적멸의 세상을 보임)의 모습이다.

고승들은 앉거나(좌탈, 坐脫) 서거나(입망, 立亡) 물구나무를 서거나(도립, 倒立) 공중에 떠서(능공, 凌空) 육신을 벗기도 한다.

국내외 고승들의 입적일화는 다양하다.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 외에도 근세 고승인 한암 만암 스님이 좌탈했다. 보조국사는 제자들과의 백문백답을 마친 다음 법상에서 내려와 마루에 앉아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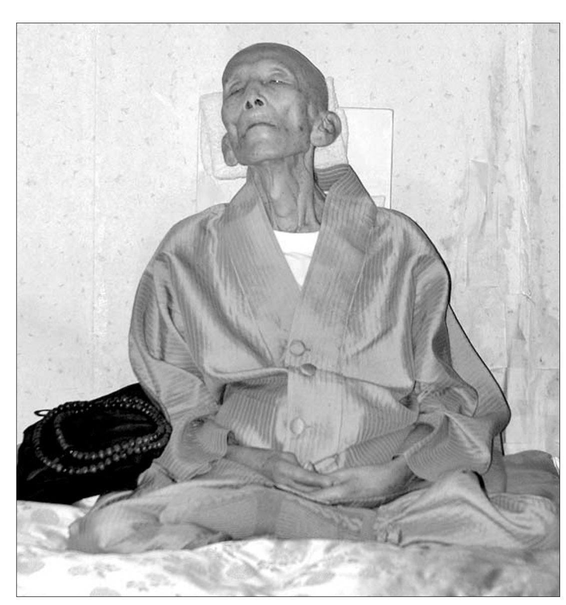
전등록(傳燈錄)을 보면 선사들의 입적 모습을 전하고 있다.

관계 선사는 몸을 태울 화장나무 그 위에 서서 열반에 들었으며, 승천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를 붙잡고 서서 열반에 들었고, 보화 선사는 관속에 들어가 열반했다.

등은봉 선사는 운동선수처럼 물구나무를 서서, 단하 천연 스님은 한쪽다리를 들고 입적에 들었다.

선사들의 죽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매우 극적인 법문이기에 죽음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좌탈에 든 서옹 스님.

㊊ 曹溪宗 第5代 宗正 西翁堂 尙純大宗師 宗團葬 ㊋

感謝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당 상순대종사께서 지난 12월13일(음 11월20일) 오후 10시 백양사 설선당에서 열반하시어, 12월19일(음 11월26일) 영결식 및 다비식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장(宗團葬)으로 여법하게 거행됐습니다. 서옹당 상순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문도들은 스님의 유지(遺志)를 이어 앞으로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證明 : 법전
顧問 : 관응 도견 범룡 도원 종산 원명 도천 성수 활안 숭산 원담 녹원 보성 이두 정천 동춘 지관 진제 지혜 혜정 춘우
指導委員長 : 지유 고산 월주 능가 송담 월운 정무 정일 법정 도문 밀운 법흥 철웅 봉주 정원 송월 종하 설정 흥교 현호 오현 명성 광우
護喪 : 석주
葬儀委員長 : 법장
葬儀副委員長 : 지하 월서 도영
葬儀委員 : 전국 교구본사 주지, 중진대덕, 중앙종회의원, 선원·강원·율원 대표, 비구니 대표
執行委員長 : 두백 성관
執行副委員長 : 현고 도일 미산
都監 : 진우
秉法 : 세민 도성
儀典 : 현공 청학 의연 토진 법일 일관 수인 법륜 법장 법신 자성 동참 법연
知賓 : 일수 현묵 무아 무공 본묵 석장 자연 석장 무학 대연 성진 광진 효진 광제 백암 백인 보문 청련 기산 일제 정원 선석 능진 원교 진연 행원 진웅 본해 심학 원철 원적 도공 성오 보철 덕인 도문 진명 정헌 백암선원
財務 : 일도 태연 심곡
弘報 : 금강 탁연 한북 법인 혜용 원종 혜오 총무원기획실 불교신문
護法 : 종열 보연 진오 정산 혜원 정본 주경 대현 무상 법선 법천 법경 법산 법해 법룡 법주 법구 법운 법전 법공 산동
接受 : 혜현 원광 원명 정궁 광덕 원오 여공 성종 석원 선관 범초 법장 산동 현욱 태화 지호 도명
만장 : 성오 원진 창인 도연 청연 상연 관연 심연 학연 법우 혜광 덕유 도명
시자 : 호산 도명 선관
주차 : 심학 무등 덕룡 도원 청호 고호 삼현 청탄 정원 도균 남혜 능혜
음향설비 : 범우 일명 우궁 청마 현공
영선 : 성후 범혜 만당 남연 지천 현조 지공 정공 정현 남천
후원 : 원일 광덕 소궁 현장 무등 보인 혜등 혜안 혜장 덕룡 덕인
다각 : 명규 자우 일지 수현 태엄 일도 법경 청곡 선애 지산 선재 현담 지용
門徒代表 : 지종
門中秩
恩上佐 : 지종 학능 태연 지승 지향 인담 지선 원연 다정 시몽 대효 임조 종성 연수 광제 지운 원웅 두백 지우 태일 소연 적연 허명 타파 현정 지범
法上佐 : 천운 철웅 벽봉 혜정 지우 대우 보광 법우 심곡 홍조 혜권
孫上佐 : 벽우 선각 진공 백암 혜승 수인 창렬 창오 정허 도형 정타 보선 몽산 범여 설종 유계 월타 보각 진아 원진 응각 법일 법륜 법운 화봉 현명 법장 법영 명연 법승 일수 법신 현공 정연 도성 설제 진우 현공 무공 범각 월우 보성 범해 일공 일진 탄우 우송 성묵 세정 태성 보현 창운 일도 현각 무연 정헌 의연 원일 선공 자성 동참 자연 보연 석장 본묵 무아 법광 금강 호산 법연 청연 상연 도연 관연 혜각 경만 범우 심연 법현 향운 제영 종연 정명 법지 정제 도현 정견 학연 석연 한북 법령 성오 재연 정진 현암 선공 대연 여연 혜종 만당 법우 귀본 심연 시연 승연 성광 남연 무애 상암 법선 고호 삼현 고웅 법천 청탄 법경 정원 우궁 법산 법해 도균 청마 법룡 소궁 법주 법구 지천 현조 지공 정공 정현 법운 법전 법공 산동 원오 남혜 능혜 남천 현장 무등 도명 시연 구암 정궁 인궁 석궁 도공 선관 현담 법성 수현 정량 근성 법인 정안 법선 법륜 혜향 정평 보안 가산 도정 도공 도종 범종 범아 도안 도아 도근 법량 도관 도신 보성 현우 법성
會孫上佐 : 미산 진우 진오 혜현 현묵 무상 무학 보인 혜원 혜등 혜안 혜장 덕룡 덕인 혜오 혜광 덕유 선종 무심 법성 법광 법연 석전 법홍 법장 무선 청호 일화 관오 진표 석각 진원 진석 법신 정상 일두 지행 지공 법당 우담 법화 법진 오양 탈해 법장 법오 법전 법강 법두 설두 법정 법선 법양 덕우 설각 설도 종성 도갑 수관 수철 설종 법원 법조

■ 연락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고불총림 백양사 ☎ 061-392-7502

曹溪宗 第5代 宗正 西翁堂 尙純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